줄잇는 불교동아리 창립…"재미있는 불교" 기대

4월 7일, 서울 봉은사서 창립법회
서울대·교대·시립대·한예종 동참
상월결사, 각 대학에 1000만원
경남대 '불락' "MZ에 불법 홍포"

임은호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교동아리 창립법회에 모인 대학생들은 "청년 전법 활동을 융성하게 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 미래 견인을 염원하며 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예술종합대(이하 한예종)와 서울시립대가 불교동아리를 창립하고 전법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4월 7일 경내 법왕루에서 '불교동아리 창립 및 학생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서울시립대와 한예종에서 불교동아리가 창립, 전법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을 예고했다. 서울시립대와 한예종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에는 봉은사 대학생 전법국장 능원 스님이 위촉됐다.

스포츠과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립대 불교동아리 '유명'은 불교기반 명상활동을 통해 올바른 수행과 함께 불교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창립됐다. 앞으로 명상 수행과 함께 템플스테이, 순례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접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하민성 지도교수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 1년 후 정식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채수정 한예종 불교예술단 '건달바' 지도교수는 "예술하는 학생들이 각자 갖고 있는 예술적 끼를 통한 전법을 위해 뭉쳤다"면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포교에 적극 가담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출발선에선 불교동아리 주인공들은 다양한 기대감을 표했다. 김세진 한예종 불교예술단 '건달바' 회장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감정과 뜻의 방향을 잘 잡고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길환 서울시립대 '여명' 회장도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각 불교동아리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원명 스님은 "부처님은 안락과 행복을 이야기하며 지혜로운 삶을 강조했다"면서 "항상 불교와 함께하며 얻게 된 이익과 행복을 주변에 나눌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학생 전법을 이끄는 상월결사는 대학에 불교동아리 운영지원금 각 1000만원을 전달하며 응원했다.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불교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길 염원하며 "세상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동아리 창립은 지역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는 4월 6일 경남대 불교동아리 '불락'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경남대 불교동아리는 2024년 1월 통도사 화엄산림법회와 대학생전법영남결사, 통도사 템플스테이 및 수계식에 참가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2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는 동아리 지원금 전달도 이어졌다.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지도법사, 지도교수, 경남대학교 불교동아리 운영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과 창립지원금 100만원, 수업지원금을 전달했다. 정법사 김선정 신도회장은 정법사 장학위원회를 통해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정법사 장학위원회는 매월 다라니 기도 초공양을 통해 모금된 기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정법사 장학위원회는 추후 경남대 불교동아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포교사회, 제29기 양성과정 입재

4월 6~7일, 합천 해인사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 스님)는 4월 6~7일 합천 해인사에서 '제29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입재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국제포교사회장 정혜 스님과 지난달 치러진 국제포교사 자격고시 필기시험 합격자 37명, 봉사자 등이 참여했다.

입재식에서 참석대중은 회장 정혜 스님의 지도하에 화엄경 발원문을 낭독하고, 신심명을 영어로 봉독했다. 이어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이 '범패 수행과 포교방법론'을 주제로 법문을 펼쳤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법문은 육성 노래와 춤이 곁들여져 감동을 더했다.

저녁 공양 이후에는 회장 정혜 스님과 해인 스님, 지선 스님의 지도로 목탁집전 습의 교육과 오리엔테이션 및 영어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둘째 날 참석대중은 새벽예불에 참석한 후 성철 스님 부도 앞에서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이 대장경과 판경에 대해 법문하기도 했다. 특히 예비포교사들이 그간 신심명을 사경한 오색화선지를 머리에 이고 일승법계도를 도는 정대 행사에 동참해 국제 전법 의지를 재차 다졌다. 대장경 판전 견학 후 근처 원당암, 홍제암, 백련암, 희랑대 등 참배로 1박 2일 일정은 마무리됐다.

예비 국제포교사들은 입재식을 시작으로 8월까지 총 37강에 이르는 양성과정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중 2/3 이상(26강) 교육은 영어로 진행된다.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조계종 포교원과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하는 면접을 거쳐 올해 9월 최종합격이 결정된다.

김내영 기자

봉은사, 도심 속 축제로 부처님 오심 찬탄

4월 9일, 선포식으로 봉축 시작
다양한 행사로 봉축 기쁨 나눠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4월 9일 경내 대웅전 앞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선포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봉축 행사 시작을 알렸다.〈사진〉 봉은사는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불교문화 행사를 봉행하며 부처님 오심을 찬탄할 계획이다.

4월 28일에는 미륵광장에서 열리는 대학생 찬불음악 축제와 함께 강남의 대표적 지역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한 '제27회 전통등 전시회' 개막 점등식이 개최된다. 아기부처님을 씻겨 드리며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관불의식 입재식은 5월 2일 진행되며 복중태아부터 7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계를 수지하는 '제 11회 봉축유아수계법회', 봉은사 합창제가 5월 4일 열린다.

5월 6일에는 봉은사 연희단의 전통무용과 북장엄단, 봉은사 계층법회의 율동을 관람할 수 있는 연희한마당이, 5월 7일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효(孝)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을 위한 공경의 의미를 담아 봉축 효잔치가 진행된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 15일에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의 가족과 이웃의 행복과 소망을 담은 연등을 환하게 밝히는 '봉축 법요식'과 '봉축 점등식'이 봉행된다. 점등식에 이어 진행되는 '봉축 음악회'는 찬불가부터 국악연주,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회향한다.

주지 원명 스님은 "다채로운 행사들에 참여하며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218-4832

임은호 기자

20살 로터스월드, 아세안 문화마당 펼쳤다

4월 7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서
'아세안 문화교류 한마당' 개최
성관 스님 "서로 의지하며 살자"


다국적 단원으로 구성된 '해피스타트'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창립 스무 돌을 맞은 로터스월드가 이를 기념하는 문화 교류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4월 7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한-아세안 문화 교류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할 뜻을 밝혔다.

내외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축사를 통해 "로터스월드가 지난 20년동안 보여준 자비행은 불자와 국민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깨닫게 해줬다"고 상찬했으며,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로터스월드가 전하는 자비의 씨앗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항출입국 공무원들과 다양한 나라 출신의 단원으로 구성된 '해피스타트 합창단'의 아리랑 공연을 시작으로 청수사 주지 지성 스님의 법고, 풍류악 사물놀이 무대로 이어졌다. 1부 공연에서는 캄보디아 전통악기(Thor So Taush)·태국 전통악기(Salor)·태국 전통춤과 중앙국악관현악단의 협연 공연이 진행됐다. 오정해 소리꾼의 '너영나영' '배띠워라',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춤추는 관현악' 공연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김경현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한지혜 메조소프라노가 '만다라화'를 열창했으며, 한창희 테너는 오페라 타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들고(Nessun Dorma)'를 불렀다. 미얀마 출신 가수 완이화 씨가 '하나의 집을 원해요' '꿈' '나는 문제없어'를 불러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미는 인기 가수 나태주 씨의 K-트롯 공연으로 장식됐다.

한편, 로터스월드는 2004년 창립했으며,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다양한 복지·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원=신중일 기자

삼보실천승가회
신임 회장 지덕 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삼보실천승려회 회원 일동
주석사찰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길95 천룡정사 054-336-0052